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환경 변화와 투자전략



2020.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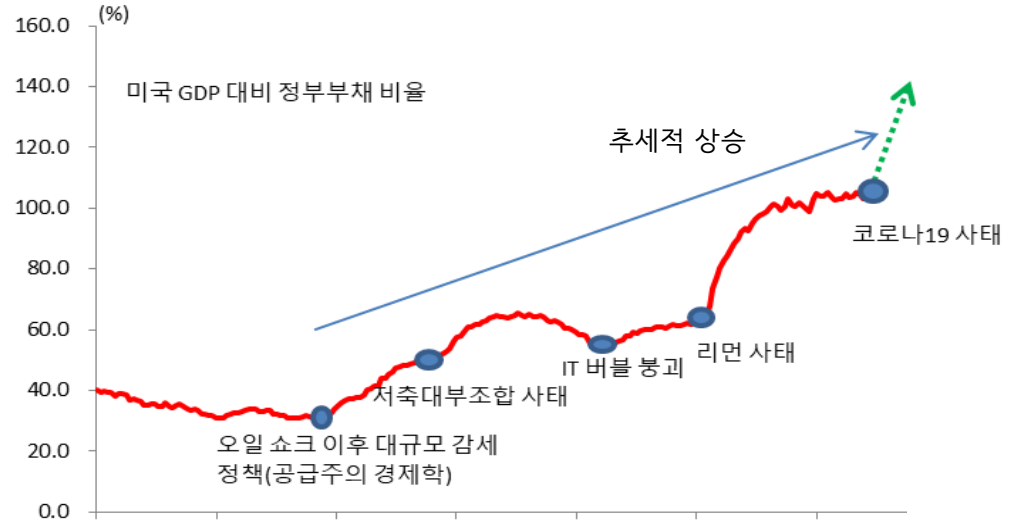
리서치팀

환경 변화와 투자전략	2
핵심 성장 산업	11
유망 종목 POOL	25

환경 변화와 투자전략

■ 위기 발생시 해결사는 항상 정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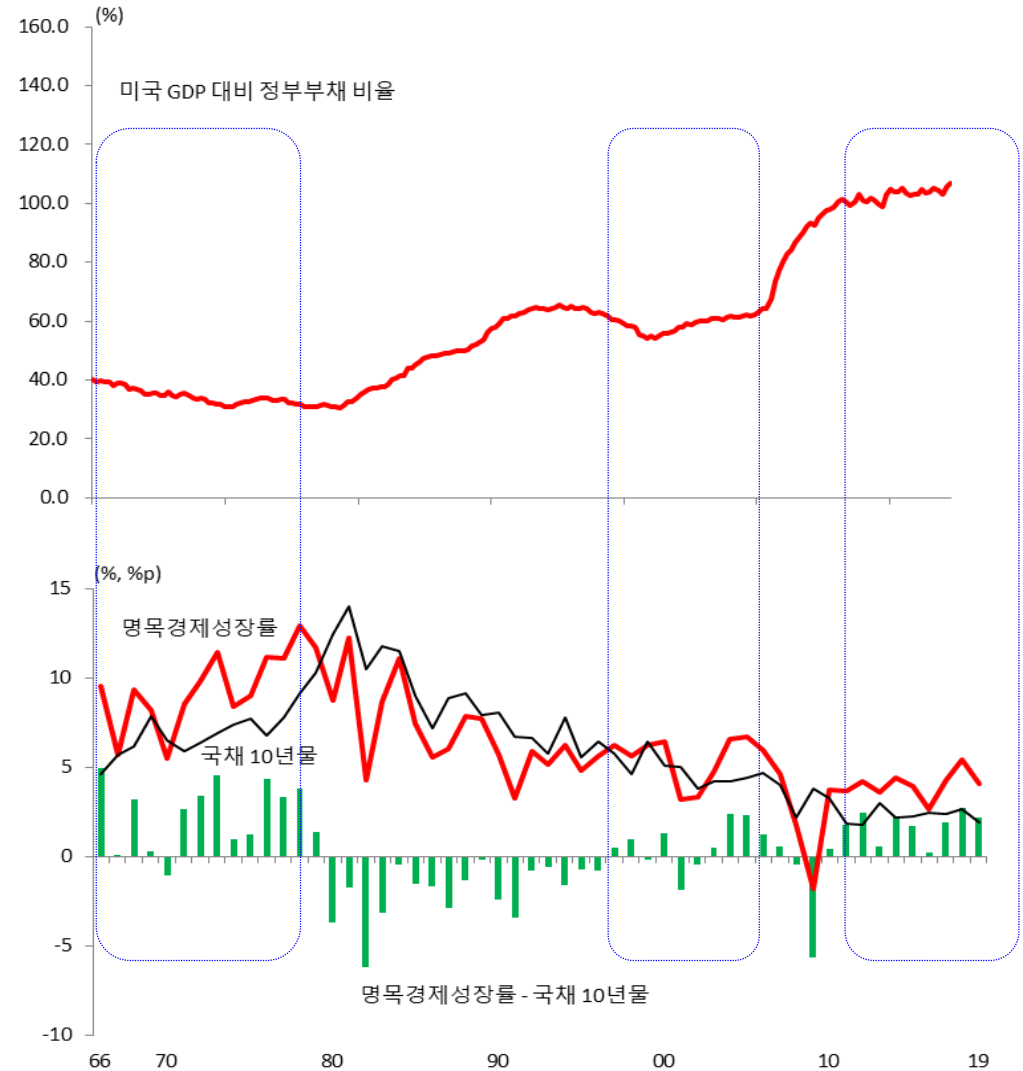
- 달러의 금 태환 정지 이후 credit을 근간으로 급격히 성장한 금융 시장 & 이를 커버하지 못하는 실물 경제
→ 주기적인 버블 & 붕괴 → 위기 발생시 실물 경제에 큰 타격 →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
- 직전에 증가한 부채가 충분히 감축되기 전에 발생하는 추가 위기 → 정부부채 비율은 추세적으로 상승
→ 부채 누적은 경제성장률 저하 유발 → 그러나 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동원될 수 밖에 없는 위기 해결 수단
- 이번의 경우 : 인플레이 문제 크지 않아 초저금리 정책 유지하면서 정부 부채로 사태 극복할 전망
- 정부 부채를 통한 위기 극복 필요성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마찬가지로 상황(중국의 재정정책 강화, 유로존의 재정에 대한 스탠스 변화)



자료 : FRED, 리딩투자증권

■ 국채 금리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할 정부

-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채 금리를 웃도는 시기에 정부부채 비율 하향 또는 안정세
- 이번에도 대규모 정부 부채로 경제성장 유도 & 제로금리 정책 지속으로 정부부채 비율 관리할 전망
- 그러나 '과거보다 도전 요인이 더 많은' 향후 경제 상황
 - 확진자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는 동안의 민간 소비 심리, 민간 투자 심리 불안정성
 - 위기 해소 이후 라이프 스타일 변화(미래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가능성 → 저축률 상승이 유발할 더딘 소비 회복
 - 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경제 효율성 저하 → 인건비 등 각종 코스트 증대, 실업 문제
 - 정부부채 비율 증대로 인한 국가 신용도 문제 등장 가능성(유로존, 일본, 취약 이머징 국가)
 - 정크본드까지 사들이는 미 연준 → 향후 디레버리징 압력 확대
- 결국 기존의 저성장세 강화 → 초저금리 정책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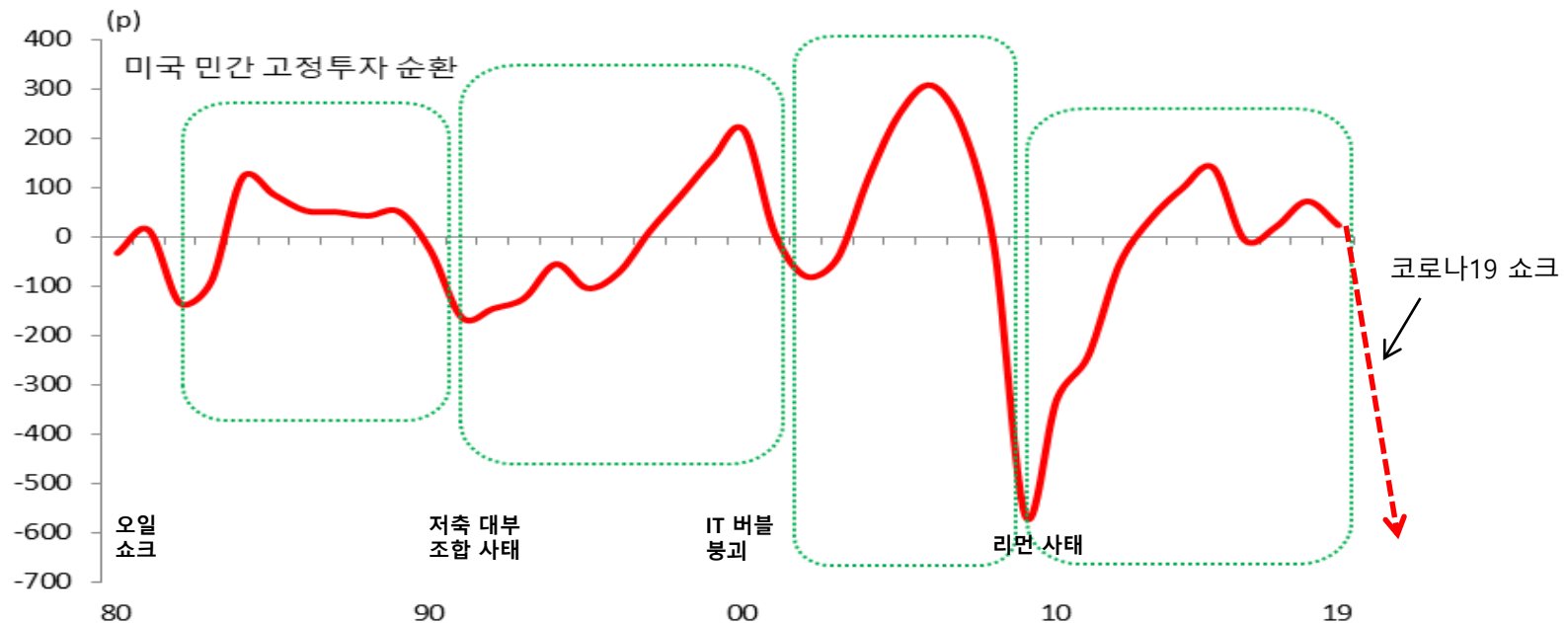


자료 : FRED, 리딩투자증권

■ 미국 민간 투자 사이클은 하강 국면 막바지 단계 .. 정부가 민간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시기

- 정부 부채비율 흐름과 마찬가지로 민간 투자 사이클도 위기 사이클과 닮아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민간 투자 감소가 가속화되어 금년 중 바닥 국면 도달 예상
- 대규모 정부 부채를 동원한 경기 부양(마중물), 그러나 정부 부채 비율의 역사적 최고치 경신 흐름은 부담
- 유망 산업 육성 정책 및 기업 지원 등으로 민간 부문 투자를 자극할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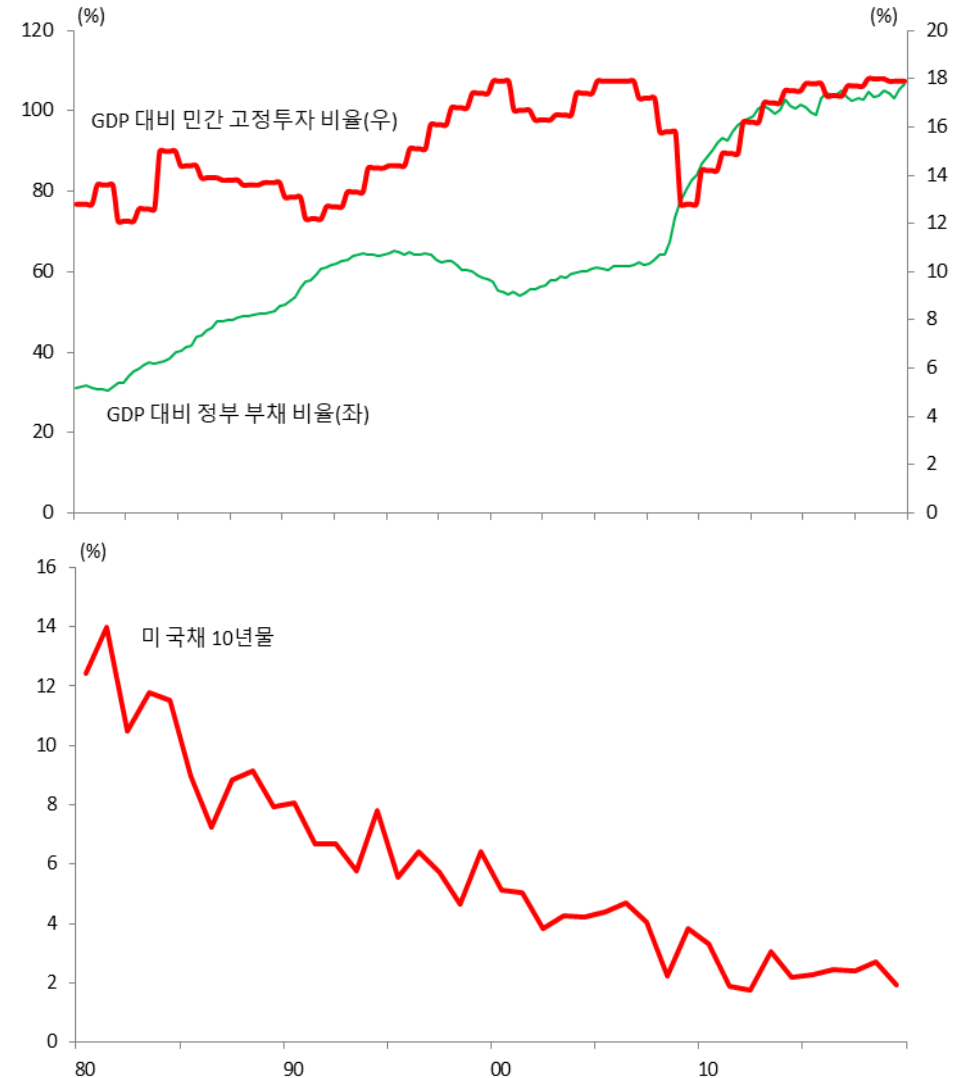
<금년 중 바닥 국면에 도달할 미국 민간 투자 사이클>



주 : Hodrick-Prescott 필터를 활용하여 순환 요인을 분리
 자료 : FRED,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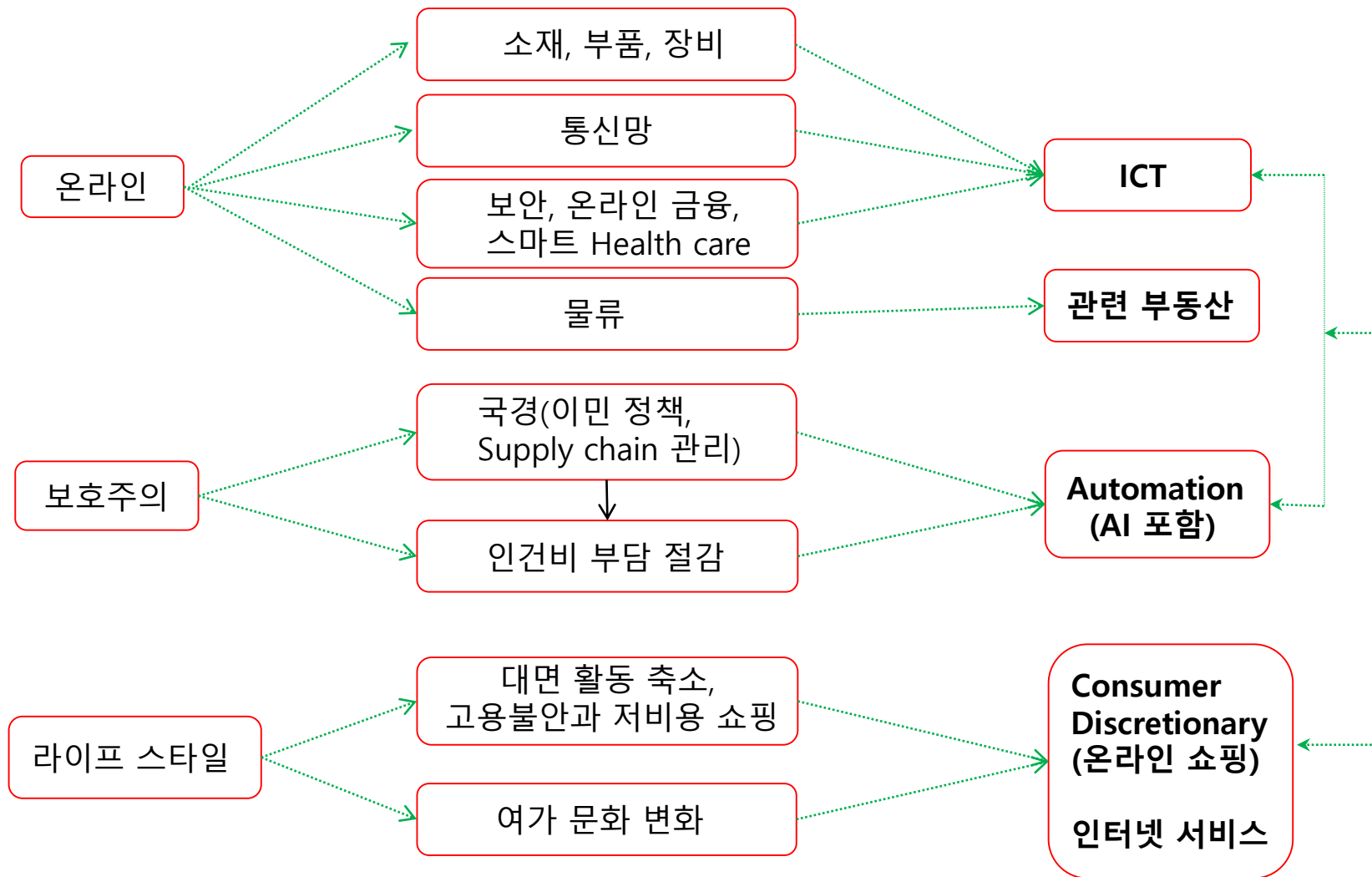
■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 금리는 하락 +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 지원 → 민간 투자 증가 유도' 과정의 반복

- 재정적 경기부양과 금리 하락은 민간 투자 증대를 자극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 부양, 제로금리 정책, 핵심 산업 육성 정책과 정부 지원 등은 위기 해소 이후 민간 부문 투자를 자극할 것
- 역사적 최고치 수준의 정부부채 비율 부담을 감안할 때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는 과거보다 더 높을 수 있음



자료 : FRED, 리딩투자증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보호주의, 라이프 스타일 개념 더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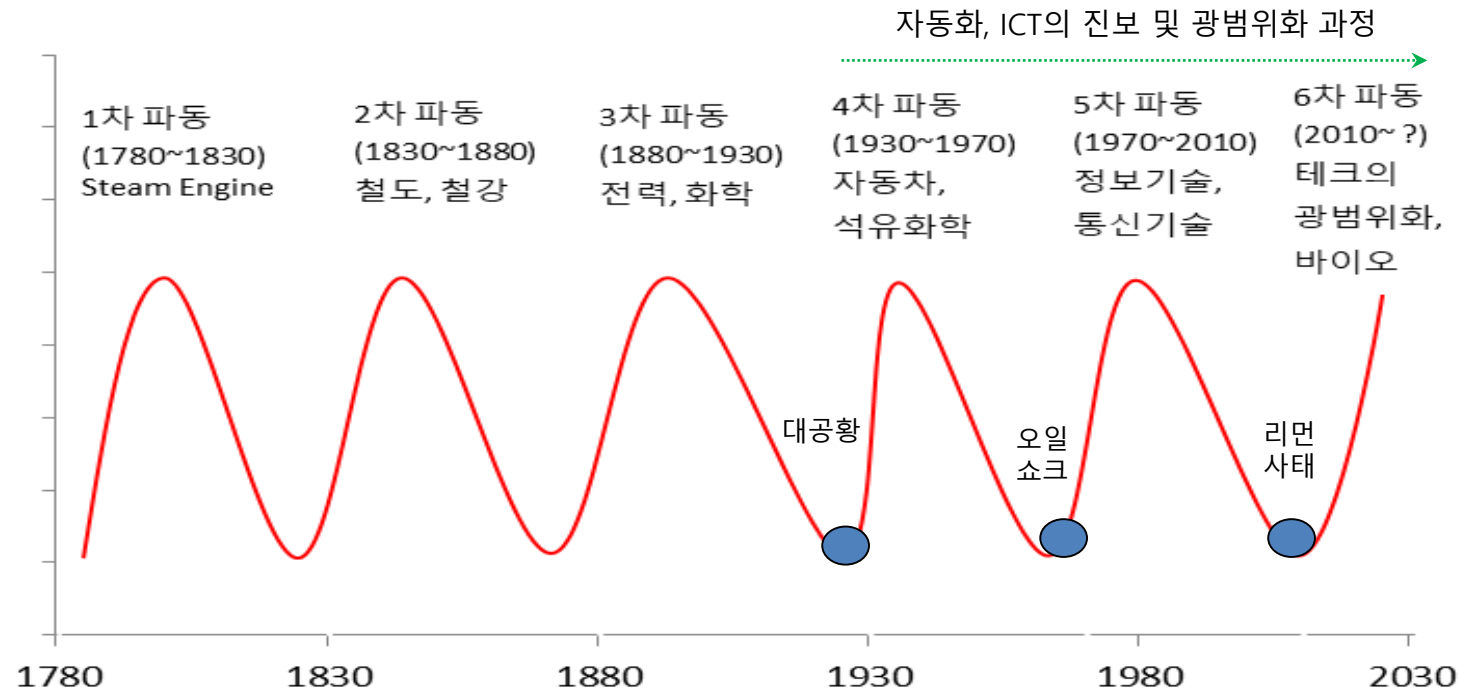


자료 : 리딩투자증권

■ 자동화, ICT의 광범위화는 대공황 이후 지속되어 온 큰 흐름, 코로나19 사태가 그 흐름을 가속화시킬 전망

- 대형 위기 이후 정부 개입이 강화(고강도 재정정책)되고, 민간 투자가 투입되면서 핵심 산업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향의 반복
- '테크 산업의 광범위화 흐름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콘트라티에프 파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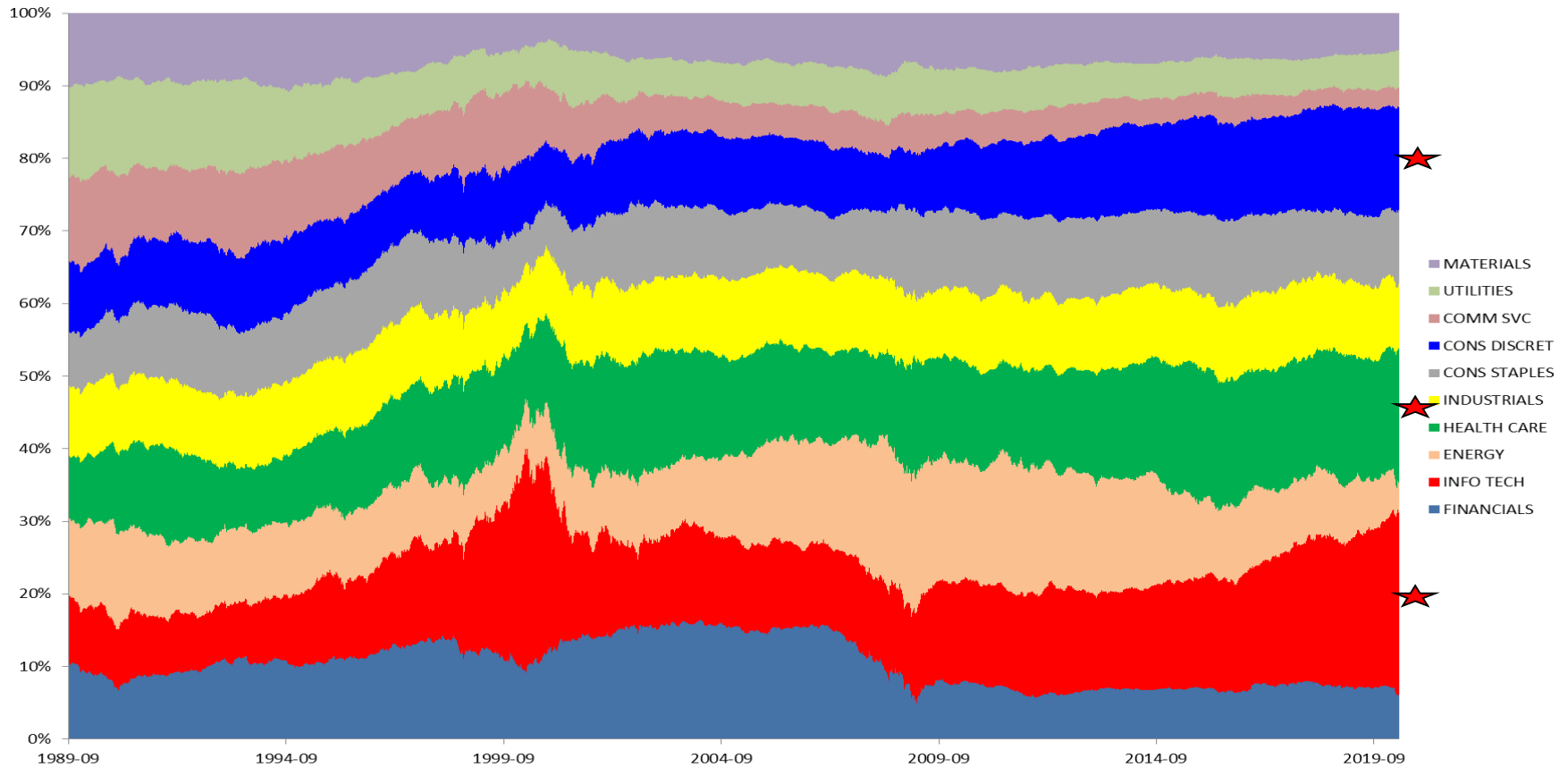


자료 : Allianz Global Investors Capital Market Analysis 에서 인용

■ 주식시장 내 IT, Consumer Discretionary, Health Care 섹터 비중 확대 추세

- 자동화, ICT 산업의 광범위화가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 미쳐 Consumer Discretionary(주로 온라인 쇼핑) 산업도 끌고 가는 구도

<S&P 500내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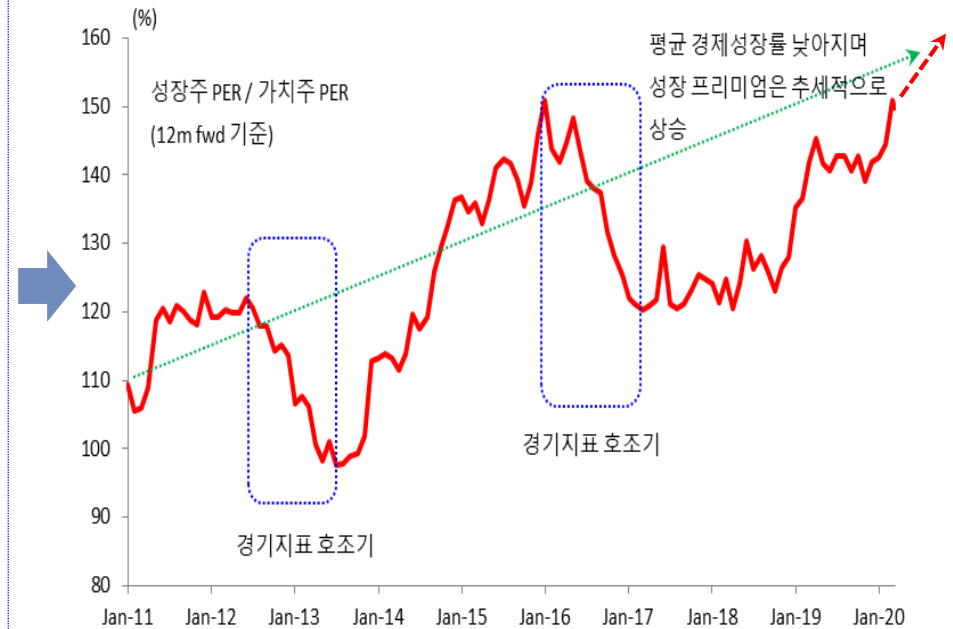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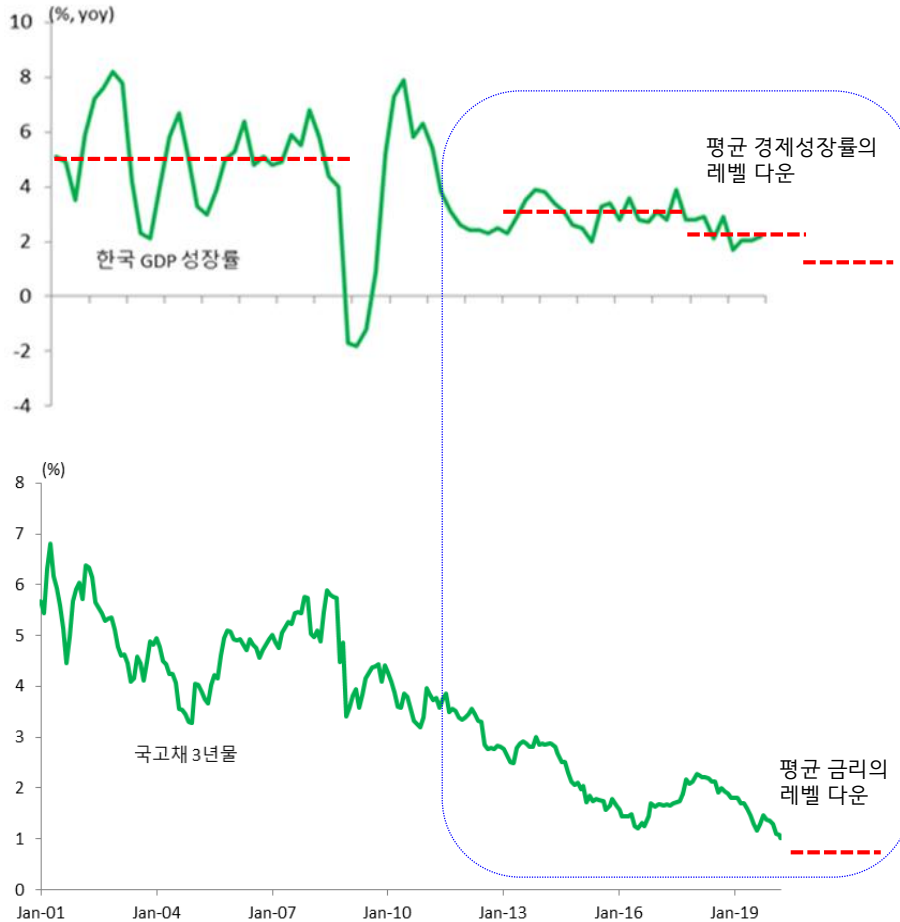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기존의 저성장세가 이번 사태 이후 더 심화 → 성장 프리미엄 추가 확대

-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 추가 레벨 다운
- 금리도 사태 이전 보다 더 레벨 다운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더 확대될 환경
(전체 시장 흐름보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핵심 산업 관련 종목에 포커스 두는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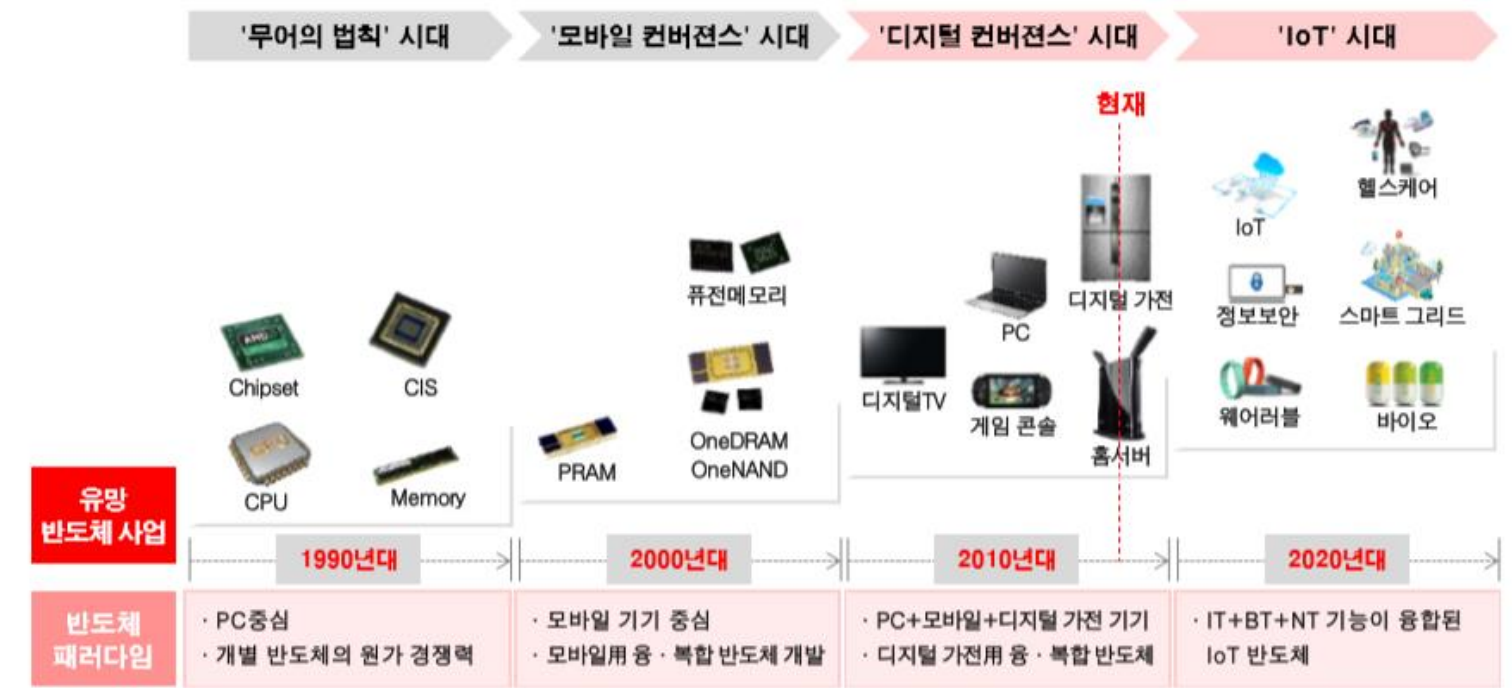
자료 : Dataguide, 리딩투자증권

핵심 성장 산업

■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속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 1990년대를 시작으로 메모리 반도체 성장이 국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2020년대에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비메모리 반도체는 IT디바이스 내에서 연산, 컨트롤 등을 하는 칩으로 시스템 반도체로도 불림)
- IoT, 웨어러블, 5G, 헬스케어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등장과 언택트 시대 돌입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산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음

<시대별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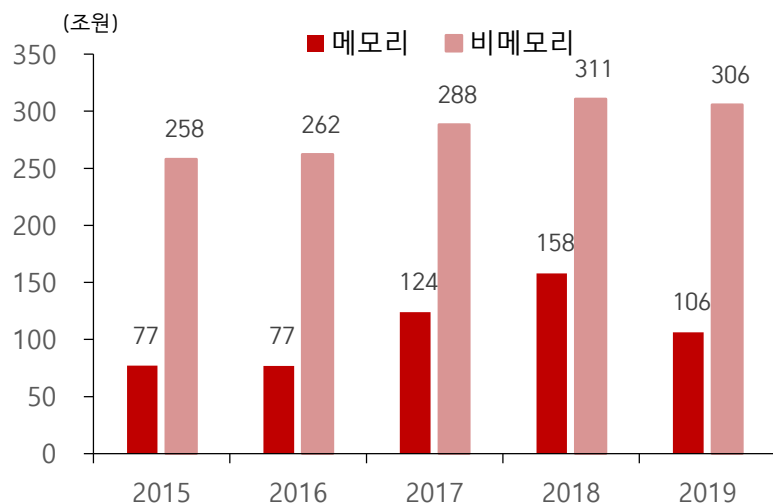


자료 : KEIT, 리딩투자증권

■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2.9배 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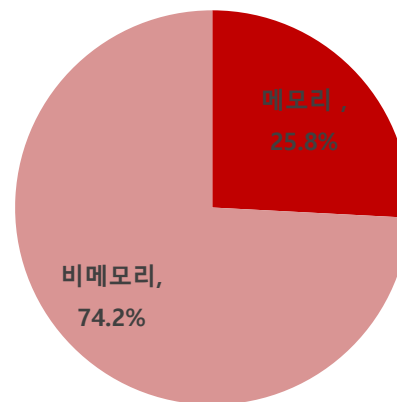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규모는 2019년 412조원
- 비메모리 반도체가 306조로 74%, 메모리 반도체가 106조로 26% 차지
-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처럼 연산과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함 (메모리 반도체는 PC, Mobile, Server 등에서 저장 역할을 하는 DRAM, NAND가 있음)
-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비중은 23%(반도체 65조 중 메모리 50조, 비메모리 15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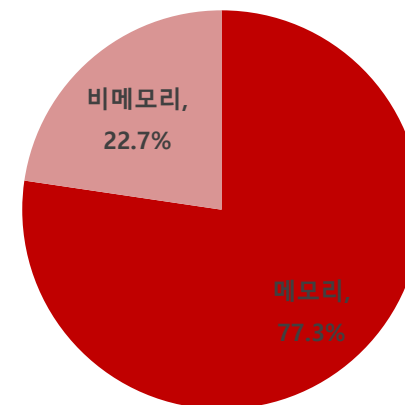
자료 : WSTS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자료 : WSTS,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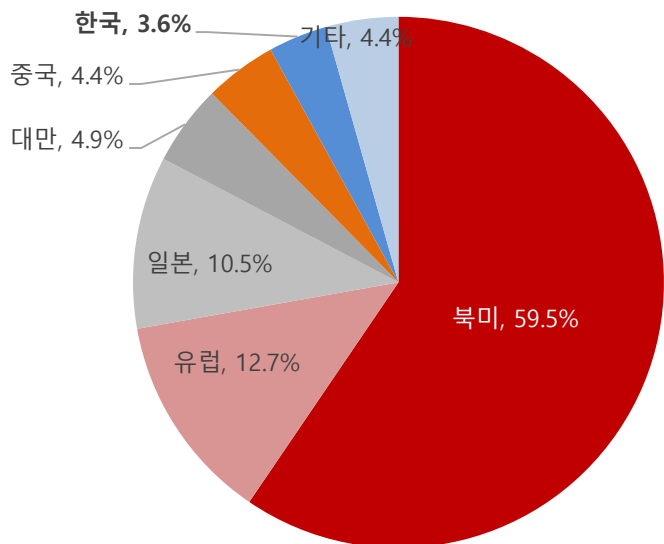
<삼성전자 반도체 비중>



■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비메모리 생태계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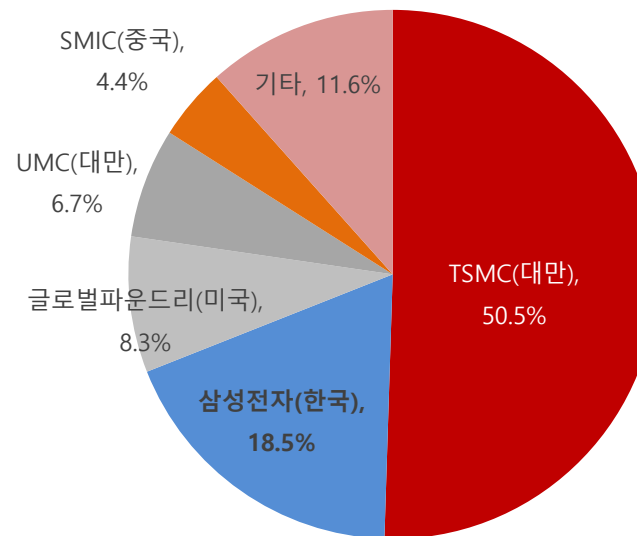
-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M/S는 3.6%로 메모리 반도체 M/S 74.7%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비메모리 시장은 Intel, AMD, IBM, Qualcomm, Broadcom, Nvidia 등이 있는 미국이 M/S 60%로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보유
- 파운드리에는 대만의 TSMC가 글로벌 M/S 50.5%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이고, 삼성전자는 M/S 18.5%로 2위이나 2배 이상 차이 남
- TSMC는 파트너사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끈끈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고객사 입장에서 기술유출 우려 감소와 단계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
- 삼성전자는 기존에 모든 단계를 직접 진행한 것과 달리 파트너사들과 생태계를 구축하여 M/S 1위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을 진행 중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역별 M/S>



자료 : IHS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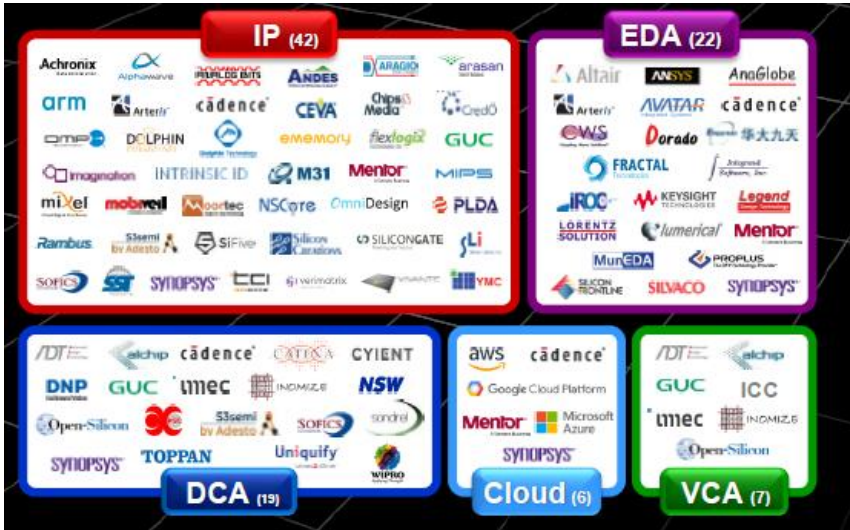


자료 : 트렌드포스

■ 삼성전자 2030 반도체 비전

- 삼성전자는 2019년 4월 24일 언론을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5만명을 채용한다고 발표 (인프라 60조, R&D 73조)
-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
-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와 기술력을 공유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과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
-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한 이후 TSMC의 OIP 모델을 삼성전자화 한 SAFE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OIP; One Innovation Platform, SAFE; 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TSMC의 O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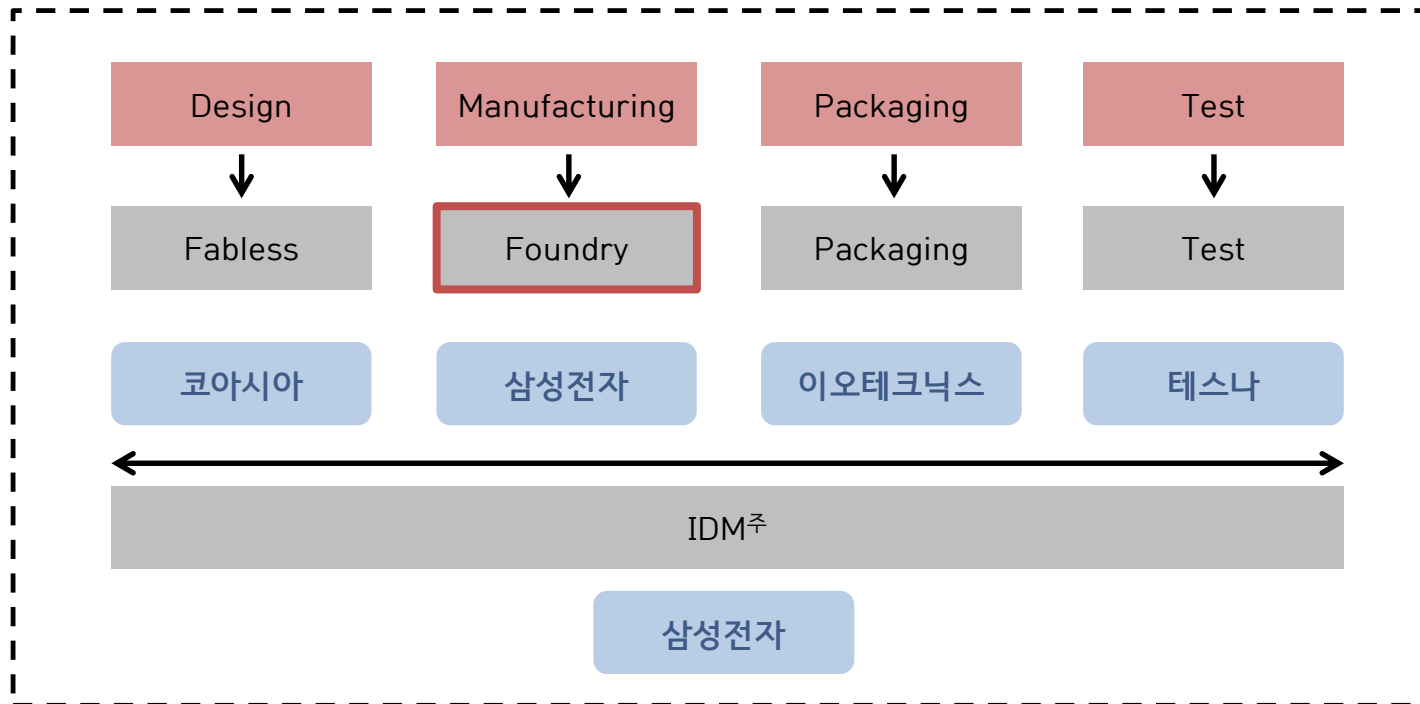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SAFE>



자료 : TSMC, 삼성전자

■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

- 삼성전자는 IDM으로 디자인-생산-패키징-테스트에 걸쳐 모든 공정을 직접 해왔으나 앞으로는 파운드리 역할에 집중할 것
- 생태계 구축 후에는 메인 파트너 지위를 갖는 업체들은 장기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공정별 삼성전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주)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자료 : 리딩투자증권

■ 글로벌 데이터 생성 규모 급증

- 글로벌 데이터 생성 규모는 2025년 연간 175제타바이트(ZB)에 이를 전망 (Statista)
- 영상 데이터가 주를 이룰 전망이며, 데이터의 이동(5G), 저장과 활용(Cloud)에 대한 수요 상승은 필연적
- 유망 업종으로 Cloud(IaaS, PaaS, SaaS)관련주, 5G 관련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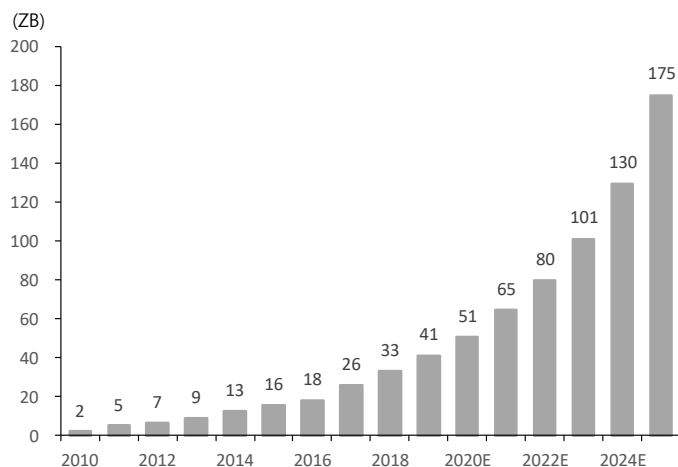
■ 글로벌 데이터센터 CapEx 가속적 증가

- IDC(데이터센터)에 대한 CapEx는 2019년 연간 1,900억달러 규모로 추정(Gartner,2018).
- COVID-19 이후 IDC에 대한 CapEx 상승 가속화 전망

■ 글로벌 5G CapEx 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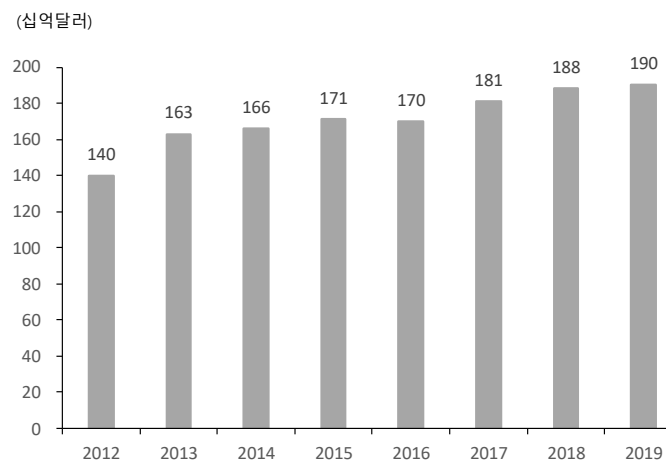
- 시장 내 COVID-19 여파로 인한 5G망 구축에 대한 투자 Delay 우려는 기우
- 오히려 늘어난 트래픽으로 5G CapEx는 가속화 예상

<글로벌 연간 신규 생성 데이터 규모 전망>



자료 : Statista, 리딩투자증권

<글로벌 데이터센터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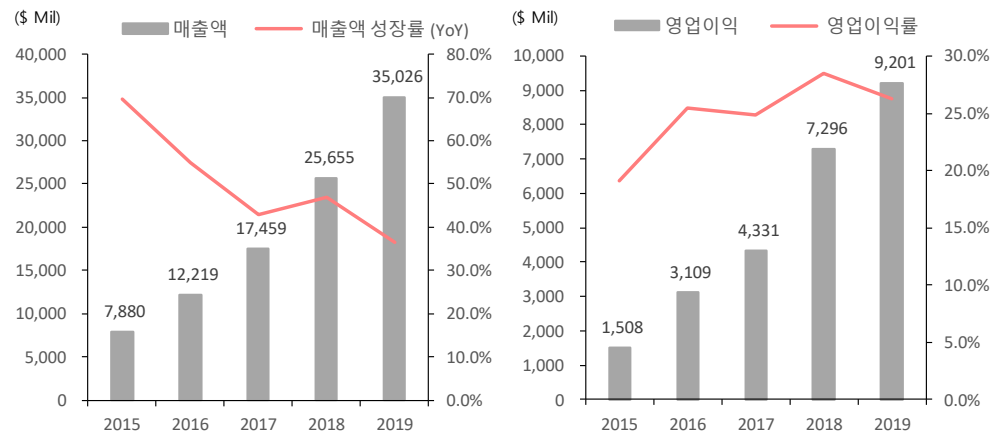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리딩투자증권

■ AI 대중화를 이끌어갈 필수적 요소, Cloud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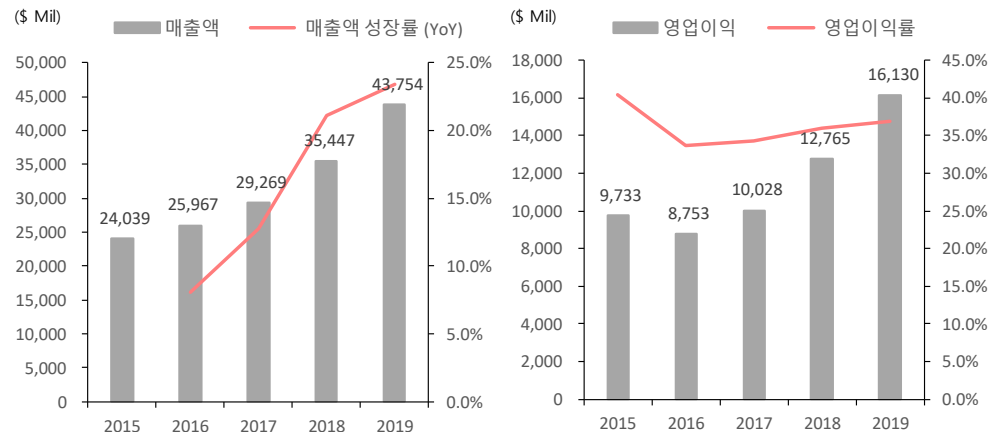
- Amazon, Microsoft를 필두로 IaaS Cloud 시장 고성장.
(’19년 기준 AWS 매출 36.5%, MS Intelligent Cloud부문 매출 23.4% 성장)
- Cloud는 AI 구현에 필수적인 Machine Learning Tool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 AI 구현을 위해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 필요
- 클라우드의 거대 저장소와 Embedded GPU는 AI 기술에 의해 작동하는 알고리즘 처리 능력에 최적
 - 글로벌 Cloud, Big 3 업체인 Amazon, Microsoft, Google은 경쟁적으로 자사 Cloud 이용 고객들에게 AI 기능 API 제공 중
 - 예) Amazon AWS 이용 시 Amazon Echo에 적용된 AI 음성인식 API를 자신의 앱에 적용 가능
 - 과거 AI 기술 구현을 위해선 관련 기술의 박사학위자 영입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Cloud 이용만으로 각 회사에 맞는 AI 기능 구축 가능
- Cloud 도입 및 침투율 확대로 AI 대중화 예상

<Amazon AWS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Microsoft Intelligent Cloud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Cloud 2.0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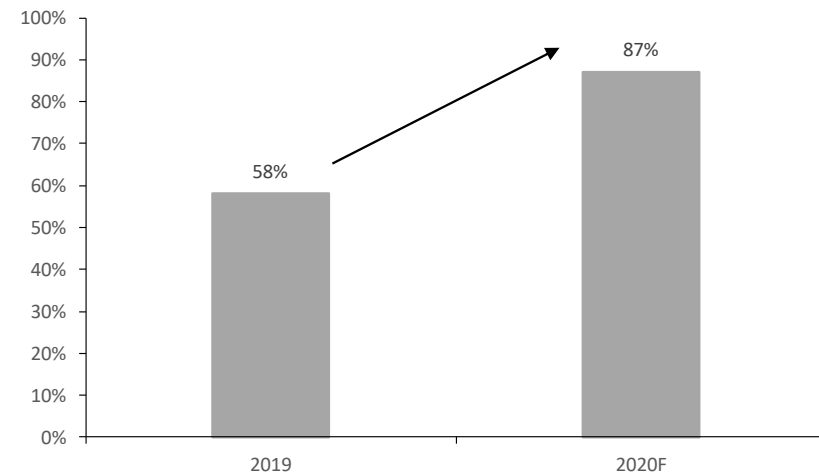
- 클라우드 1.0 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에 의한 기업의 IT자산 관리 효율화와 전산 운영 비용 절감에 중점
- 클라우드 2.0 시대, 각 IaaS 클라우드 제공 업체 (Amazon, Microsoft 등) 의 AI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
- Deloitte Global은 '19년도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Cloud based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기업 입장에서 AI 역량을 획득하는 빠른 방법은 AI 가 이미 주입된 상태의 기업 SW를 활용하는 것 (MLaaS 등). 이들 SW는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구현. "인지 기술"을 알고 있는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이를 활용 중
- Deloitte Global은 '20 년까지 AI 사용자의 약 87%가 통합 AI 를 갖춘 기업 소프트웨어로부터 자사 AI 역량의 일부를 얻을 것으로 추정함

<Cloud 1.0과 Cloud 2.0 비교>

Cloud 1.0	Cloud 2.0
· 기업 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IT 관리 효율 향상, 비용절감 도모	· AI, IoT, Big Data 등을 융합하여 新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본 인프라 요소
· 인프라스트럭처 중심	· 어플리케이션 중심
· 오케스트레이션 역량	· 오토메이션 역량
· 비용절감 목적	· 기능활용 목적

자료 : 리딩투자증권

<기업 내 AI 주입 소프트웨어 활용도 전망>



자료 : Deloitte Global,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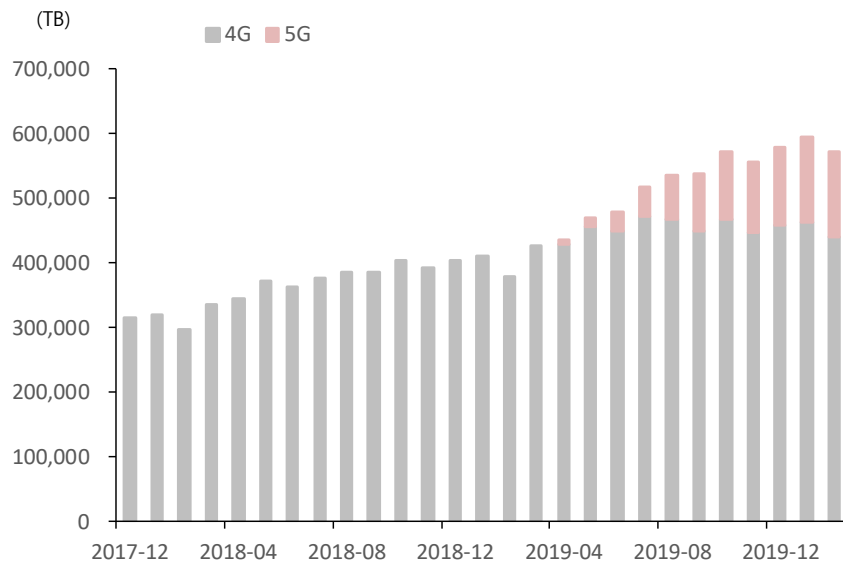
■ 늘어난 데이터 만큼, 늘어나야 할 트래픽

- 각 국가별 데이터 트래픽 급증 여파 (동영상 트래픽 급증에도 현재 통신 인프라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
 - 구글 YouTube와 넷플릭스는 유럽에서 스트리밍 영상 품질을 한 달간 SD급으로 낮춰 제공할 예정
- 국내 데이터 Traffic은 4G와 5G 데이터가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5G 비중 확대 진행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tatista는 글로벌 Traffic이 2022년 월 77.49 엑사바이트(1,024 페타바이트)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COVID사태 이후 예상치 상회할 가능성 높음

■ 이미 예정된 2020년 5G 투자 본격화, COVID-19 사태는 기름을 부은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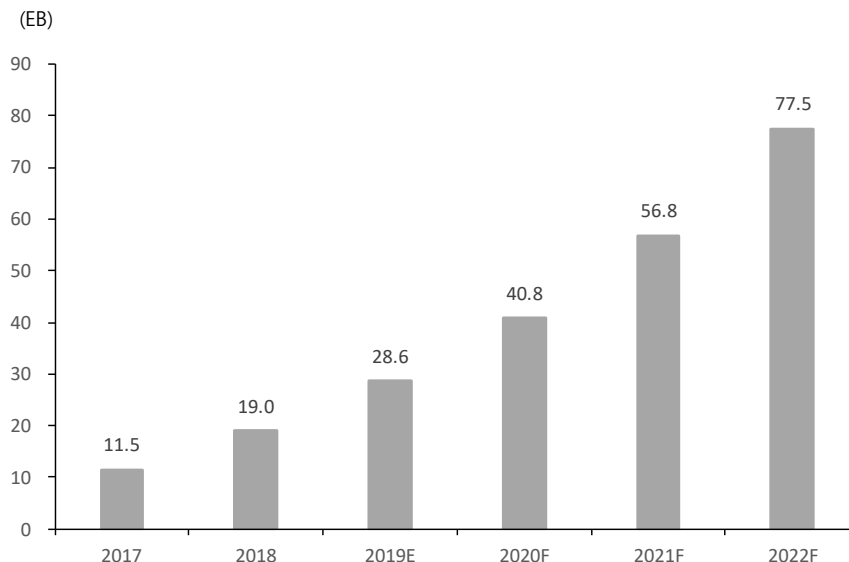
- 2020년 이내 한국을 필두로 글로벌 28GHz 대역 CapEx 집행 개시 예상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 추이>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딩투자증권

<글로벌 월간 무선 데이터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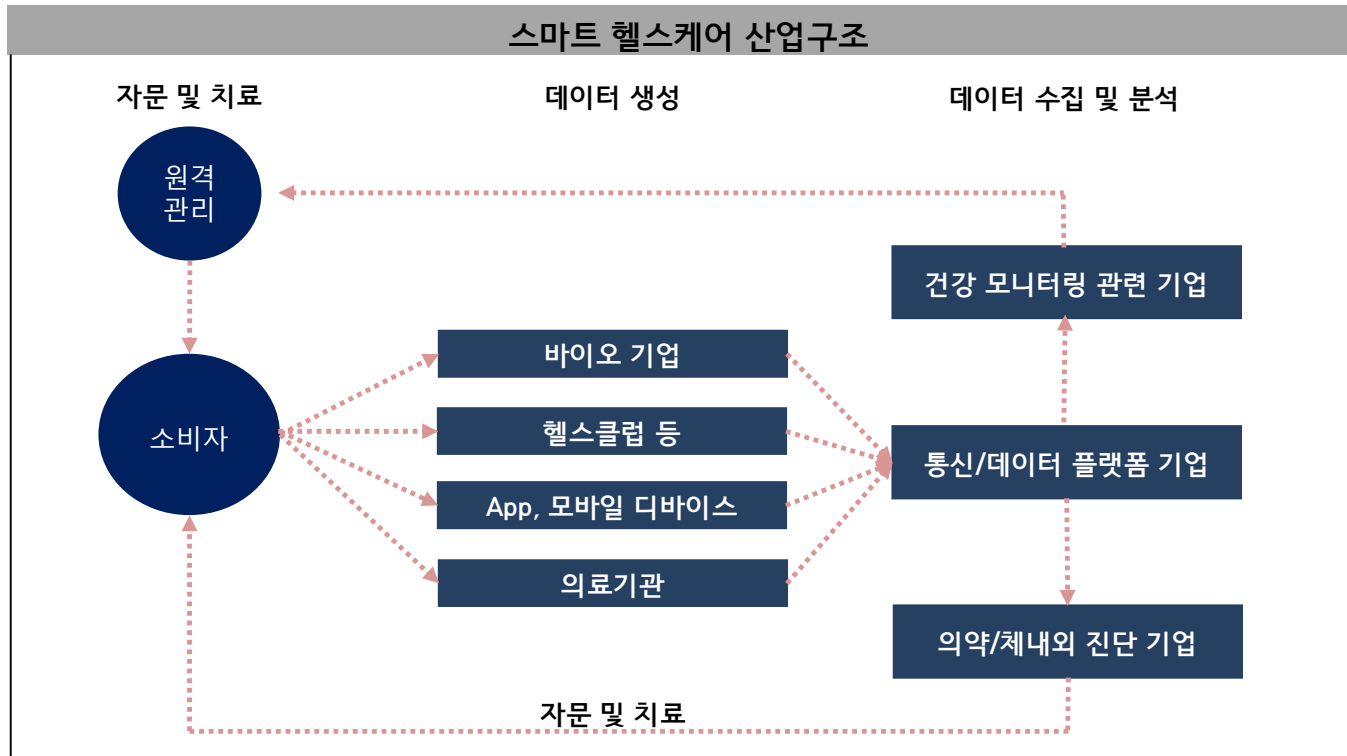
자료 : Statista, 리딩투자증권

■ ICT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

-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 ICT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으로 변화
- 소비자의 의료 데이터를 전문기관이 수집 및 분석하고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예방 및 치료하는 구조

■ 치료 위주에서 예측·예방 중심으로 변화

- 과거 제약·바이오,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회사 중심 → 모바일, 통신사, IT, 웨어러블 영역으로 확장
- 기존 치료 중심에서 예측·예방, 개인 맞춤형 중심으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



자료 : ETRI,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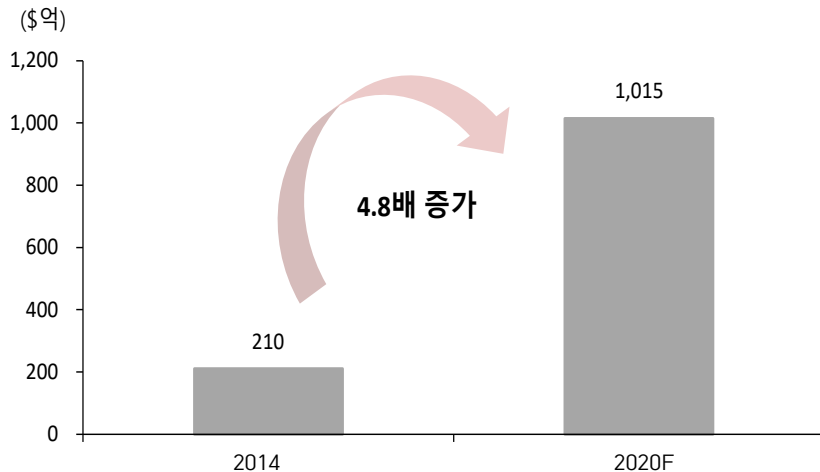
■ 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 시장 규모 확대

-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14년 \$210억 → '20E \$1,015억)
- 원격의료 시장 규모도 '15년 \$181억 → '21E \$412억으로 확대 전망

■ 스마트 헬스케어 주요 기술 분야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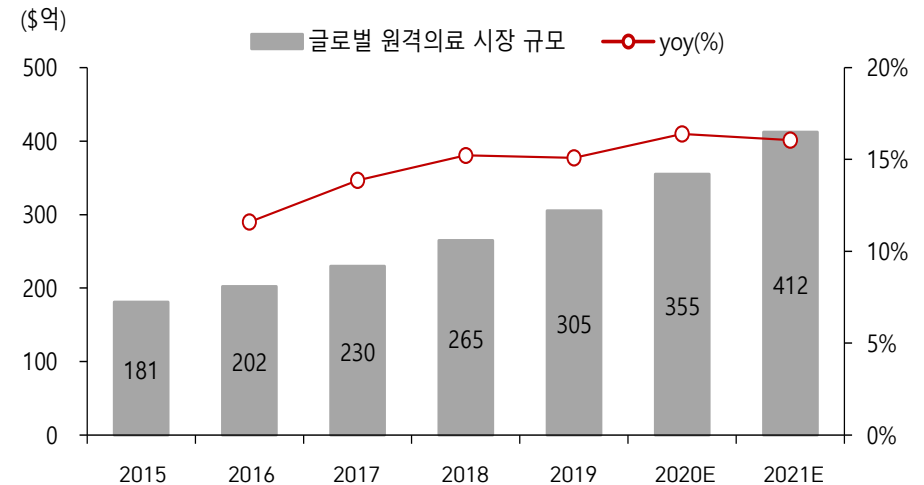
- ① 빅데이터 ② 인공지능 ③ IoT ④ 가상/증강현실 ⑤ 로봇틱스
-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 및 센서 등의 개발로 개인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기술 진보 전망
- 개인별 맞춤형 약품 처방 및 신약개발에도 적극 활용되고 시간과 비용 절감에 장점 보유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PMG, 리딩투자증권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



자료 : Statista,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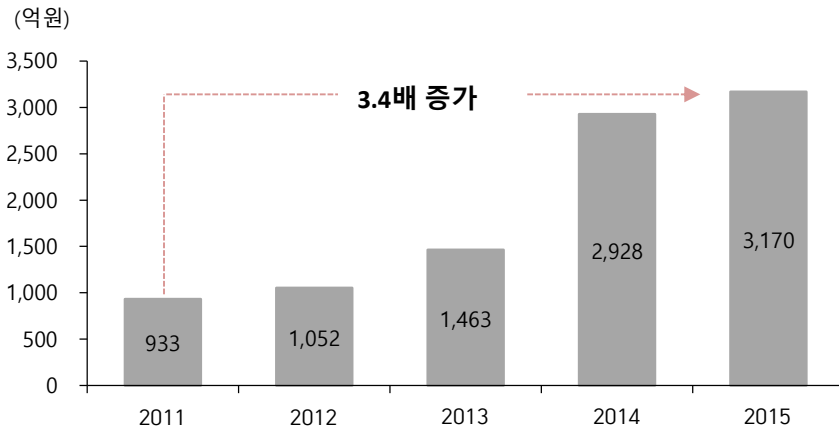
■ [글로벌] 글로벌 대기업도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진출

- 구글, 애플, MS 등 ICT 기업뿐만 아니라 인텔, Bosch 등 제조기반 기업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 진출
- 주요 선진국은 원격의료 서비스 및 투자 확대 추세
- 최대 의료시장인 미국의 경우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일본: '15년 원격의료 시행(건강보험 및 로봇수술 허용)
 - * 중국: '16년 원격의료 시행(시장규모 4조원으로 추산)

■ [국내]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 헬스케어(원격의료 포함) 시장 확대

- 국내 VC의 의료_바이오 관련 투자 규모는 '11년 933억원 → '15년 3,170억원으로 크게 증가
-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원격진료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다만, 국내는 원격의료에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불가한 상황(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
 - *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허용

<국내 의료_바이오 신규 벤처투자 규모>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리딩투자증권

< 5대 신산업 예산 편성 및 비중 >

구분(억원)	18년 예산	19년 예산	YoY(%)
에너지신산업	4,382	5,283	20.6%
미래차(전기·자율주행)	2,190	2,984	36.3%
IoT가전	420	680	61.9%
바이오·헬스	1,738	2,121	22.0%
반도체·디스플레이	488	830	70.1%
합계	9,218	11,898	29.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리딩투자증권

■ 스마트 헬스케어는 다원적, 다층적 서비스로 변화할 전망

- 종래의 수동적이고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 구조로 서비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국내의 경우 '1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14만명, '26년 초고령 사회(20.8%)로 진입 예정.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증가 및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
- 이로 인해 원격의료 기술은 IT 산업의 기술 발전과 함께 동반하여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새로운 기술과 함께 다양한 파생시장 형성

① 미용분야

- 유전체 분석, 피부측정 센서 등을 통한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 웨어러블 디바이스, 날씨 정보 등과 연계하여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 시세이도(일본): 380만건의 피부정보 Data를 기반으로 '미래 피부 예보' 서비스 제공
 - * 미래 피부 예보 : 피부상태 변화의 알고리즘을 통해 4일 후 피부 상태 예측

② 피트니스 분야

- 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재활솔루션 등 피트니스 분야까지 발전
- 특히, 의료보험사와 협업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
- *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센서 장치를 통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금융 비용 절감

③ AI 의료기기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영상 및 의료솔루션 기술 개발 확대

- ※ 뷰노(한국) : 국내 대형병원에서 수집된 X-ray 영상 수 만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 의사 보조 수준의 판독 능력(동등성 입증)
- ※ 루닛(한국) : 의료영상 진단기업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초기 병변도 97%로 발견

유망 종목 POOL

섹터 구분	종목(코드)	시가총액 (십억원)	Comment
시스템반도체	코아시아(045970)	170.8	디자인 하우스로 삼성전자 DSP로 등록,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됨
	이오테크닉스(039030)	832.8	삼성전자의 PLP 투자 확대로 PLP용 레이저 드릴러 장비 수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테스나(131970)	363.1	시스템반도체 테스트 서비스를 확대해 CIS 매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네트워크 (5G)	케이엠더블유(032500)	2,329.5	노키아와 공동 개발한 5G용 MMR장비 개발, 국내 통신장비 업체 중 글로벌 5G 투자 노출도 가장 높은 기업
	RFHIC(218410)	955.1	고주파수 대역(3.5GHz 이상)에서 GaN(질화갈륨)의 RF트랜지스터 채택은 필연적 요소.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등의 매출처 확보
	나무기술(242040)	99.5	삼성전자를 통한 5G 네트워크 가상화(NFV) 사업부문 실적 가시성 높음. '19년 280억 매출 달성 및 '20년 350억 달성 전망
Cloud & AI	더존비즈온(012510)	2,281.8	19년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Enterprise SW 플랫폼인 <WEHAGO> 서비스의 확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의 높은 수익성으로 이익 고성장 달성 전망
	라온피플(300120)	177.1	AI머신비전 적용 분야 확대 예상. 기본 Rule 기반의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알고리즘화 하여 균일한 검사 품질을 유지함. 기본 IT섹터를 넘어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섹터로 수요 확대 전망
	나무기술(242040)	99.5	2020년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인 '각테일 클라우드' 사업부문 실적 가시화의 원년. '19년 연간 매출액 24억원 (자회사 포함 약 40억원 규모)으로 BEP 수준 달성. 향후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로 수혜 전망
온라인 서비스	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	762.7	① COVID로 인한 모바일 쇼핑 및 전자결제 시장 성장세, ② 글로벌 A 사의 앱스토어 전자지급결제 대행사 선정 등 해외 가맹점 확대에 따른 외형성장, ③ 테이블 픽업 오더 서비스 등 O2O 사업부의 성장성 3가지 포인트 주목
스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032850)	111.4	20년 클라우드 솔루션 시장 침투에 따른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국내 원격의료 구축 실적 1위,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기대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145.4	의료영상 전송저장시스템 등 영상진단기기 강자
	이지케어텍(099750)	97.7	국내 상위 10개 중 5개 병원이 동사가 구축한 시스템 도입 미국 보건의료관리협회 평가에서 가장 높은 'Stage7' 획득으로 해외 시장 진출 가능
	케어랩스(263700)	107.1	동사 위치 기반 병원 검색 플랫폼 '굿닥'의 MAU 증가 2Q20 온라인 처방전/실손보험 처리 가능 원격 서비스 추가 도입 예정
	인성정보(033230)	70.3	국내 유일 원격의료 전용 기기 식약처 인증완료 기업 5G 상용화와 함께 초저지연 5G 기술 기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개방 중
	소프트센(032680)	53.4	빅데이터 수집/분석 솔루션 기반 의료 시스템 제공 질병 연구,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빅센메드' 개발 완료, 국공립 병원에 구축 실시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